

육계자조금

자조금소식 대형 닭 생산, 인프라 구축이 선행 되어야...
닭이야기 닭고기 구입 전 꼭 인증마크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육계자조금으로 제작되어
전국의 모든 육계농가들에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0

2

계열화 사업의 국제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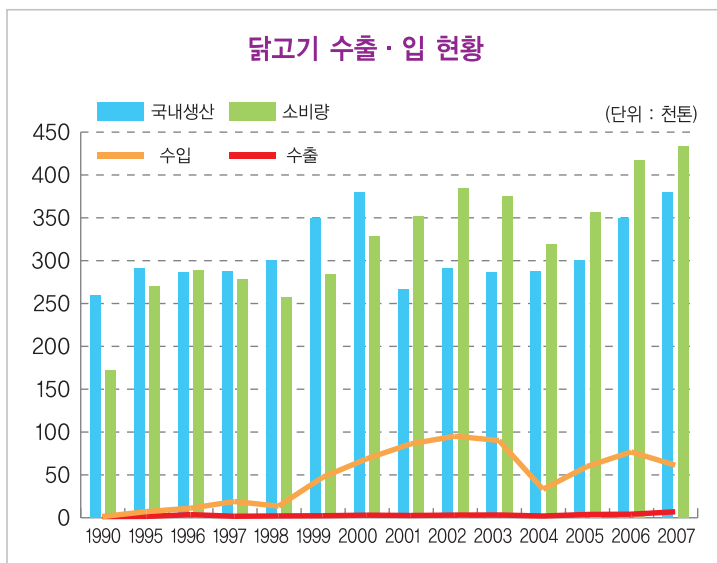
본문은 가금수급안정위원회에서 육계 계열화 사업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한국의 계육 수입현황은 1999년 1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2년에 32.2%로 최대 증가하였고, 2007년 15.8%로 꾸준히 10%가 넘는 추세를 보여 왔다. 국내의 닭고기 시장은 신선육 통닭에서 부분육과 냉동육 및 가공 제품으로 소비트렌드가 변화하면서 통닭의 소비 위축과 수입산 닭고기의 증가로 통닭 위주의 판매에 전념했던 국내업체가 입는 타격은 큰 편이었다. 닭고기 kg당 생산비에서 우리나라보다 저렴한 미국, 브라질, 덴마크, 프랑스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닭고기는 국내 닭고기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일정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 왔다.

WTO에서는 수입량의 경우 일정량을 일정기간 동안 수입해야 하는 쿼터제(quota)를, 관세에 있어서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적용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점차 수입은 증대되고 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결과를 보면 통닭은 18~20%, 냉동(가슴살, 날개)은 20%에 대한 관세를 단계별로 인하하되 12년에 철폐하고, 냉장육은 18%, 냉동(다리, 기타 절단육)은 20%, 닭고기 가공품은 30%를 10년에 철폐하기로 결정되어 닭고기의 수입의 증대는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닭고기 업체와 관련협회 그리고 정부는 국내산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와 더불어 원산지 표시의 철저한 단속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전염병에 해당되는 질병 발생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사전차단하거나 검역절차나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 무분별한 닭고기의 수입을 사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검역기준의 강화에 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를 주는 소고기의 수입이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되는 사례를 통해 닭고기도 소고기와 동일한 검역기준 등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국내 닭고기 업체들은 좀 더 신선하고 위



닭고기 수출·입 현황

(단위 : 천톤)

구분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국내생산	259.9	291.1	286.5	287.7	300.7	349.3	380.4	266.7	291.1	286.5	287.7	300.7	349.3	380.4
수입	0.0	5.8	9.8	17.6	12.2	45.9	67.5	84.9	93.8	88.8	31.9	58.5	75.5	60.0
공급계	259.9	296.9	296.3	305.3	312.9	395.2	447.9	351.6	384.9	375.3	319.6	359.2	424.8	440.4
수입육 비율	0.0%	2.0%	3.4%	6.1%	4.1%	13.1%	17.7%	31.8%	32.2%	31.0%	11.1%	19.5%	21.6%	15.8%
소비량	171.7	270.4	288.6	277.9	257.7	284.0	329.0	351.6	384.9	375.3	319.6	356.7	416.8	433.7
수출	0.0	0.2	2.3	0.4	0.8	1.0	1.7	1.3	1.8	1.9	0.7	2.5	2.8	5.6

자료 : 통계청



생적인 닭고기 생산은 물론이거니와 국내 닭고기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과 제품의 다양화를 통해 수입 닭고기와의 차별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국내업체들의 닭고기 수출규모는 수입산 닭고기의 규모에 비해 미미하지만 조금씩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 시장의 테두리에서 안주하던 국내 업체들도 수입산 닭고기의 증가에 대한 대비로 수출을 시도해 보지만 현실의 벽은 높은 편이다.

한국·미국·유럽의 '08년 육계 생산비를 비교해 보면 한국 사육원가가 미국에 비해 27%나 높게 형성되고 있으나 EU 국가보다는 낮은 91%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쟁국과의 사료 요구율 차이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 미국, 동남아, 브라질 등 육계 경쟁력이 높은 나라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더욱 낮추는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 미국과 비교해 볼 때 병아리비 차이가 214%(152원)나 나서 출하

체중을 올려서 병아리 비용을 줄이고 계사 시설을 현대화하여 연료비를 개선하면 53원이 절약되고, 사료 요구율까지 개선되어 또 29원이 줄게 되면 함께 234원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천131원은 미국의 105.7%여서 물류비를 감안하면 경쟁력은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한국·미국·유럽의 육계 생산비 비교(2008년)

구분	항목	미국 (2009년)	유럽 (2008년)	한국+사 (2008년)	차이	
					H사-미국	H사-유럽
육계 생산비 /kg당 (LC3)	병아리비	132.9	242.6	285.4	152.6	42.8
	사료비(원재료비)	674.2	738.5	703.4	29.2	-35.0
	사료운반비/제조비 (노무, 경비)	40.3	36.3	50.6	10.4	14.3
	사육수수료	158.8	132.0	151.1	-7.7	19.1
	연료비, 기타	8.0	46.1	61.1	53.1	15.0
	약품비(백신비)	1.6	44.5	31.3	29.6	-13.2
	출하, 운반비 (상차/생계운송)	42.0	51.7	50.6	8.6	-1.1
	관리 감독비 (대행료포함)	5.4	2.4	15.0	9.6	12.6
	기타 제비용	7.7	200.3	16.7	9.0	-183.6
합계		1,070.9	1,494.4	1,365.2	294.3	-129.2
국가 별 FCR		1.52	1.51	1.75	0.23	0.24

자료 : (사)한국계육협회

대형 닭 생산,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김동진 (사)대한양계협회 부장

대형 닭 생산에 대한 관심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형 닭 생산은 닭고기의 진정한 맛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생산비를 줄여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과거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에서도 대형 닭 생산 및 수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실로 들어가면 국내에는 대형 닭 생산에 대한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사환경 등 인프라가 빈약해 대형 닭 생산 체제로 돌입한다는 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로 들릴 뿐이다.

전세계 주요국들의 육계출하 체중을 보면 2~3kg에 달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출하체중이 우리나라(1.5kg)와 비슷한 프랑스(1.3kg)도 있지만 일본, 중국, 폴란드 등은 출하체중이 2.2~2.5kg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형 닭 생산기술 이미 확보

축산과학원에서는 수년전에 이미 '대형 닭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실용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본회 검정연구소에서도 7주에 3kg까지 닭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대형 닭 생산이 불가능하지 만은 않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대형 닭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다면 일본 등 가까운 시장에 충분히 수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닭을 크게 키우지 않더라도 가까운 일본 등은 맛과 위생이 따라준다면 언제든지 수출이 가능하다.

축산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닭의 체성분은 어릴수록 수분함량이 높다가 크면서 단백질과 지방이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육계가 커질수록 늘어나는 단백질의 아미노산중 풍미를 결정하는 특정 아미노산의 함량이 커지기 때문에 더 맛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오래 키우면 초기투자비용(초생추 구



입비)이 줄기 때문에 생산비를 낮출 수 있으며, 3kg을 키울 때 1.5kg을 키워 출하하는 것 보다 13% 수준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모든 상황을 보았을 때 우리도 대형 닭을 키워 생산비를 절감하고 풍미있는 닭고기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함은 물론 닭고기 수출의 길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계사환경 등 여건 부족

하지만 우리나라는 생산 및 유통구조상 1.5kg의 닭고기를 생산하는 체계가 굳어진지 오래다. 큰 닭을 생산한다 해도 이를 도제할 곳이 마땅히 없으며, 작은 닭에 길들여진 소비자들 역시 제대로 커진 큰 닭을 보면 너무 크게만 느껴져 손이 가질 않는 것이 현실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열악한 환경에서는 대형 닭을 키워낼 수 없다. 생산성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 계사시설이 큰 닭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국내의 계사환경은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여 대형 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곳이 많기 때문에 완전계사 정도의 시설수준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요즘처럼 종계 생산성이 나쁠 경우 병아리 품질을 장담할 수 없으며, 대형 닭으로 키울 때에는 질병발생시 위험요소가 크기 때문에 선불리 대형 닭을 생산하려고 나서는 농가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도계장 역시 대형 닭고기 생산을 위한 라인 등 설비가 필요하며,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대형 닭 생산을 위한 시설을 증설한다고 가정할 때에도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는 문제없지만 수출길이 막히면 국내 육계시장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크다. 과거 대형 닭고기 수출을 위한 전문 도계장을 표명했던 모 도계장은 당초의 목적과는 다르게 일반 도계장 역할만을 수행하면서 업계에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당시 H계열사는 수출 전용 닭고기 도계장을 천명하며 국내 육계산업이 나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였고, '닭고기 수출'이라는 명분하에 정부로부터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현재는 실제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육계인들만 혼란에 빠지게 한 격이 되었다. 현재 병아리가 부족하고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조차 힘든 이때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수출닭 육성'이란 단어만을 '장미빛 인생'으로 추구한다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으로 다시 업계를 안개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데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출 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대형 닭 시장에 대한 로드맵을 잡아나가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낱 '공염불'에 불과하다. 대형 닭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제시되어 국내 양계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닭경제능력검정사업의 의의와 역사

오봉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닭경제능력검정사업의 의의와 필요성

양계농가는 누구나 채란계는 많은 알을 낳아주기를 원하고, 육계는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닭고기를 생산해 주기를 원한다. 국내에는 많은 닭품종과 계통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그중 과연 어떤 품종과 계통이 내가 원하는 생산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닭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닭에 대한 능력검정사업이다.

우리나라에는 1960년 초 처음으로 미국 김버(Kimber) 종계장에서 생산된 상업용 실용계(C.C)가 도입되면서 국산계는 서서히 자취를 감추게 되고 해를 거듭하면서 상업용 외국종계가 물밀듯이 들어와 1960년 후반에는 난용종 수입종계 품종수가 30여종에 이르게 되어 마치 우리나라 양계시장이 외국닭 품종의 전시장처럼 되었다. 이러한 양계시장 환경하에서 일반 양계농가들은 자기 농장에 적합한 닭계통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정부와 국가 연구기관에서는 양계농가에게 닭 품종선택의 가이드라인(지침서)을 제공해줄 아무런 자료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였다. 즉, 우리나라 양계 여건하에서 이들 외국계를 사용해 보았더니 어떤 계종이 어떤 성적을 나타내었다는 평가자료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당시 학계와 업계에서는 닭경제능력검정사업(이하 검정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검정소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검정사업의 목적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여러 계통의 닭을 한국적인 양계 여건하에서 사육하였을 때 어느 닭계통이 어떠한 생산능력을 나타내는지 공정하게 평가하여 우리나라 양계농가에게 우수한 종계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양계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양계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닭경제능력검정소(이하 검정소)에서 얻어진 능력검정 성적은 앞으로 닭을 개량하는데 필요한 귀중한 자료로 이용된다. 즉 출품된 닭계종에 대한 검정성적의 장단점

“검정방법은 세계 육종학자와 회사가 인정하는 과학적인 방법과 검정성적의 자료처리 또한 통계적으로 하자 없이 처리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검정사업을 신뢰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을 조사·평가하여 개량방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검정소에서 발표되는 산란계종, 또는 육용계종 닭의 능력과 성적을 자기 농장의 생산성과 비교·검토하는데 필요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끝으로 정부는 검정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외국종계에 대한 종계수급조절과 양계경영 및 양계산물수급조절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닭경제형질능력검정방법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 검정방법 또한 세계 육종학자와 회사가 인정하는 과학적인 방법과 검정성적의 자료처리 또한 통계적으로 하자 없이 처리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검정사업을 신뢰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닭경제능력검정소(현 검정연구소)의 연혁

검정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1960년 중반 학계와 업계가 모두 인정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우선 학계대표와 업계대표로 닭경제능력검정소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모금운동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모금액의 태반은 업계 대표들이 제일 많이 협찬하였고 학계와 양계업계, 사료업계, 동물약품업계의 독지가들도 십시일반 힘닿는 대로 조금씩 협찬하여 주었다. 모금된 기금 80만원으로 우선 검정소 부지를 서울시 도봉구 공릉동 배나무밭 2천300평을 매입하고 검정소에 필요한 건물과 시설은 협회예산 일부와 농

림부 축산국에서 국고예산을 지원받아 검정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검정소의 주요 건물과 시설은 사무실 건물 1동, 계사 1동, 육추사 1동, 숙소 1동이며, 시설로는 평사 사육시설과 부화·육추시설 일반 양계장 시설과 기구를 설치하여 검정하였으며, 1969년도부터는 평사와 케이지에서 검정하였다.

제1차 검정소

(1966년 4월~1971년 6월, 서울 성북구 공릉동)

1966년 4월 1일 제1회 산란계경제능력검정사업이 개시되었으며 출품된 계종은 백색레그혼 9개 계통에 450수를 검정하였다.

1970년에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거 검정소 이전명령통보를 받고 제2차 검정소를 물색하고, 이전장소를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불노리에 밭 7천392평을 매입하여 이전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 성북구 공릉동 검정소에서는 1966년에서 1971년까지 5년간에 제1회 산란계경제능력검정은 1966년에서 1971년까지 5년간에 제1회 산란계 경제능력검정사업에서 제5회 산란계 능력검정사업까지 수행하였다.

제2차 검정소

(1971년 7월~1985년 10월,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1971년 6월 14일 제2차 검정소를 경기도 김포에 건설하여 산란계와 육계의 경제형질 검정사업을 시작하였다. 부지 7천392평에 사무실과 부화실 건물 714평, 산란계 및 육계검정계사, 육추, 육성사를 합하여 635평, 부속건물 43평, 관리사 36평의 건물을 신축하고 운영되었다. 제2검정소에서 1971년에서 1983년까지 12년간 검정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동안 김포시 검단면 일대가 도시화가 진행

되어 검정소 부근에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검정소에서 발생하는 소음, 냄새, 먼지 등이 인근 아파트단지에 공해문제로 제기되자 인근 주민들의 불만 민원이 쇄도하여 더 이상 제2검정소에서 검정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제3의 장소를 물색한 곳이 지금의 검정장소인 경기도 안성군 서운면으로 옮기게 되었다. 제2검정소에서는 산란계 능력검정사업이 제6회에서 17회까지 12회가 이루어졌고, 육용계 능력검정사업은 제3회에서 13회까지 이루어졌다.

제3차 검정소

(1985년 11월~현재, 경기도 안성군 서운면)

1985년 11월에 김포에서 안성으로 제3차 검정소로 이전하였다. 검정소 부지는 8천891평이며, 이곳에 최신행 검정계사 11동 442평의 건물을 신축하여 계사 형태에 따른 산란계의 생산능력을 검정함으로써 일반 양계농가에게 계사의 형태에 따른 산란계 생산성에 미치는 장단점을 조사·분석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안성군 소재 검정소에는 관리사 4동, 사무실 및 부화실 1동, 창고 5동 기타 계분창고, 차량소독실 등 검정사업에 필요한 모든 시설과 구조물을 구비한 검정소로서 거의 완벽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안성으로 이전한지 25년이 되는 작금의 검정소는 이 지역 도시개발로 주변환경이 점차로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검정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여 새로운 청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장소로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어렵다면 노후화된 시설을 보완, 교체하여 최소한 검정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낙농자조금 사업의 성과

적극적 참여 독려와 투명한 집행으로 100% 거출률 육박

어느 자조금이든 사업 첫해는 농가들의 불신과 오해로 거출률이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농가 참여 독려와 자조금의 투명한 집행으로 신뢰는 얻는 것이 필요하다. 육계자조금도 사업이 초기인 만큼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이상기



낙농자조금사업은 1999년 (사)한국낙농육우협회 주관으로 우유 소비촉진을 위해 국내 축산업 중 처음으로 임의자조금사업을 실시했다. 당초에는 우유 1리터당 1원씩 거출해 연간 20~30억원(국고보조 포함)의 사업비로 공익적 광고활동 등의 TV광고를 제작해 방영하는 등의 소비홍보사업에 집중했다. 이 당시는 지금처럼 의무적으로 자조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납부하게 되어 있어 무임승차자들에 대한 반감 등으로 인해 임의자조금사업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의무자조금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5년 10월 (사)한국낙농육우협회와 농협중앙회를 주관단 체로 하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간의 임의자조금사업을 청산하고 2006년 5월 의무자조금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국내 최초로 할 수 있는 낙농임의자조금사업의 7년의 노하우가 의무자조금사업에 녹아들어 의무자조금사업 첫해에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성과를 나타냈다.

무엇보다도 자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년에 3~4회 이상의 관리위원회와 2회의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현황 보고 및 농가 의견수렴 등을 반영하여 짜임새 있는 사업집행을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농가 거출률이 100%에 육박하게 되었다. 이는 특히 낙농가의 인식의 전환과 자조금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낙농자조금사무국은 자조금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농가들의 불만과 오해 등으로 자조금사업 집행에 다소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의식 있는 지역 지도자 및 낙농가들과 함께 해당 농가를 직접 방문, 자조금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자조금사업 동참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한 결과 자조금 거출률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낙농가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위원회 홈페이지와 낙농자조금 소식지를 통해 사업 집행에 대한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하여 낙농가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낙농자조금은 타 자조금에서 찾아보기 힘든 거출률 100%를 육박하고 있다.

2008년까지의 낙농자조금 총 결산액은 212억2천751만2천원으로 소비홍보사업 177억999만9천원(83.43%), 교육 및 정보제공 14억7천972만1천원(6.97%), 거출홍보 4천915만5천원(0.23%), 조사연구 6억8천570만 원(3.23%), 징수 수수료 3억2천682만6천원(1.54%), 운영관리비 9억7천611만1천원(4.60%)이 집행되었다.

〈2007년~2009년 낙농자조금 사업 집행액 및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소비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	거출홍보	조사연구	소계	비고
2007년	7,314,766 (92.4%)	383,620 (4.9%)	9,138 (0.1%)	206,388 (2.6%)	7,913,912 (100%)	집행액
2008년	6,990,145 (86.9)	814,974 (10.1%)	49,155 (0.6%)	191,800 (2.4%)	8,046,074 (100%)	
2009년	5,119,500 (63.5%)	2,358,491 (29.2%)	201,145 (2.5%)	390,000 (4.8%)	8,069,136 (100%)	예산

소비홍보사업이 타 사업에 비해 비중이 높은 것은 자조금사업의 본 목적인 소비홍보를 통한 소비촉진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위원회는 자조금 도입 시부터 효과적인 자조금 집행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의뢰, 개별 사업에 반영하였다. 또한 장기적인 사업 방향 수립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인 자조금 선진지 사례 연구, 자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투자 배분에 관한 연구 등을 추진하여 효과적인 사업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08년까지는 예산 대부분이 TV, 라디오 광고사업, PR사업 등 주로 매스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사용됐다. 특히 광고로 집행된 예산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2009년부터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노력하였다.

2009년 낙농자조금 사업은 전체 91억8천5백만원 중 소비홍보사업 51억1천950만원(55.74%), 교육 및 정보제공 23억5천849만1천원(25.68%), 거출홍보활동 2억114만5천원(2.19%), 조사연구 3억9천만원(4.25%), 징수 수수료 1억3천200만원(1.44%), 운영관리비 4억2천117만9천원(4.59%), 예비비 5억6천273만7천원(6.11%)이다. 2009년도 사업의 특징은 예년에 비해 소비홍보사업의 비율이 줄고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비율이 증가된 것이다. 소비홍보사업의 광고사업 비중이 예년보다 5억원 정도 줄었으며, 예년 소비홍보사업의 이벤트 행사로 진행된 ‘도심속 목장 나들이’를 사업 성격에 맞게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2009년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은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교육 위주의 사업으로 실시해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낙농자조금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부상한 도심속 목장 나들이를 비롯하여 유아대상 우유체험교실, 주부대상 우유요리교실, 노인대상 우유건강세미나 사업 등은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참여율과 함께 호응도 높아 2010년에는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2008년에 시작한 ‘도심속 목장 나들이’ 행



사는 소비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관광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송아지 우유주기, 건초주기, 손을 이용한 젓짜기 체험, 우유교육 전시물 운영, 우유아이스크림 만들기, 우유 포토존 등 관광객들에게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동시에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육장을 입구에 설치하고 각 프로그램 별 운영 장소에 방문 도장을 준비·확인하는 스탬프 릴리를 통해 선물을 제공하여 관광객 모두가 우유의 진정한 가치를 체험을 통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관련 책자를 재미있게 제작하여 배부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우유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당일 관광객들에게 이벤트를 통한 홈페이지 회원가입 유치로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회원 관리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2008년 ‘도심속 목장 나들이’ 행사는 총 6회에 걸쳐 진행돼, 약 5만7천300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2009년에는 전국에서 7회 진행해 11만명의 관광객이 행사에 참여해 상당한 관심과 인기를 모았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도심속 목장 나들이’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지원금을 협찬하는 기관들이 생겨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2010년에는 전국에서 10회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낙농자조금사업은 소비자와 직접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사업에 보다 더 주력할 계획이다. 물론 소비홍보사업에도 광고사업을 비롯한 PR사업, 프로그램 제작 방영 및 협찬 등도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통합마케팅(IMC :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을 실현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또한 자조금사업의 핵심인 효율적인 자조금 집행을 위해 각 사업에 따른 효과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연구하고 보완하는 작업에 매진할 것이며,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별 특성을 바로 인식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닭가슴살을 이용한 이색 닭고기 요리

닭살 채소 경단 & 닭고기 파산적

명절 설을 맞아 훈제치킨과 떡갈비 등이 들어있는 육가공품 선물세트를 하나 받았는데 그 안에 닭가슴살 제품이 있었다. 그냥 생닭이라면 백숙을 해먹던가, 토막토막 잘라서 매운 닭 볶음탕을 해먹거나 튀겨먹거나 하겠지만 얇게 슬라이스된 흰색 닭가슴살을 받아보고 한동안 무슨 요리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닭가슴살이 이처럼 단독으로 제품화된 데는 웰빙, 몸짱 열풍을 타고 닭가슴살만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기회에 다이어트 요리로도, 술안주로도 좋은 닭가슴살 요리 한 두 개쯤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닭살 채소 경단



재료

닭가슴살 400g, 감자1/2개, 양파1/2개, 피망 1개, 대파 1대, 당근 1/2개, 풋고추 1개, 부침가루, 식용유, 후추, 청주

만들기

- 1 닭가슴살은 잘게 다져 후추, 청주를 뿌려 놓는다.
- 2 감자, 양파, 피망, 대파, 당근, 풋고추는 모두 잘게 다져 놓는다.
- 3 ①, ②의 재료에 부침가루와 물을 넣고 잘 섞어 반죽해 놓는다.
- 4 팬에 기름을 두르고 뜨거워지면 ③의 반죽을 한 스푼씩 떠놓아 아랫부분이 살짝 익으면 뒤집어 주걱으로 가볍게 눌러 모양을 만든다. 노릇하게 익으면 접시에 모양 있게 담는다.
※ 또는 작고 둥글게 빔어 팬에 굴러가며 익혀내도 된다.
- 5 ④에 후추, 물엿을 넣어 윤기를 내고 큰 접시에 담은 다음 그 위에 파채, 깻잎채를 얹고 깨소금을 뿌려낸다.

Cooking Tip

부침가루 대신 튀김가루를 사용하여 동글동글하게 튀겨내도 아주 맛있다. 또한 아이들이 싫어하는 야채를 닭고기 순살과 함께 조리해 영양 만점! 맛 만점!

닭고기 파산적



재료

닭가슴살 400g, 실파(쪽파) 150g, 양파즙 1큰술, 다진 마늘 1/2큰술, 생강즙 1작은술, 맛술 1큰술, 소금, 꽃이 구이 양념(간장 3큰술, 다진 마늘 1/2큰술, 양파즙 1큰술, 생강즙 2작은술, 고춧가루 1큰술, 물엿 1큰술, 설탕 1작은술, 다진 홍고추 1큰술, 녹말 1작은술)

만들기

- 1 닭가슴살은 7mm두께로 넓게 편 후 칼등으로 두들겨 일정한 두께를 만든다.
- 2 양파즙, 다진 마늘, 생강즙, 맛술, 소금을 섞어 양념을 만들고 1의 닭고기에 발라 30분간 재운다.
- 3 ②의 간이 베인 닭고기는 팬에 지져 익혀 1.5cm폭에 6~7cm길로 썰어 놓는다.
- 4 실파는 닭고기와 같은 길이로 잘라 놓는다.
- 5 꽃이에 닭고기, 파, 닭고기 순으로 끼워 구이 양념에 (구이 양념은 재료를 섞어 만든다) 다시 재운 다음 기름 두른 팬에 살짝 지지준다.

닭고기 구입 전 꼭 인증마크 확인하세요!

우리가 즐겨먹는 닭고기. 과연 어떠한 것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육안으로 봤을 때 일반인이 좋은 닭고기를 고르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선택을 해야 할까? 정답은 바로 인증마크다. 우리나라는 닭고기를 포함한 여러 식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인증제도를 도입, 적용하고 있다.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인증마크를 부착한 닭고기는 생산과정에서부터 유통과정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친 후 선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입 전에 체크해야 하는 닭고기 인증마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KS마크(가공식품 국가 표준 규격)



KS마크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정성, 기능성, 영양성, 건전성 및 편리성 그리고 기호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제도이다. 1992년 축산물로는 처음으로 닭고기가 KS인증을 받았다. KS마크는 제품심사와 공장심사를 한 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닭고기에만 부여한다.

G마크(경기도지사인증)



G마크란 경기도지사인증 농특산물을 나타내는 품질인증 상표다. G마크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닭고기 생산농가 및 업체를 선정해 전문기관에서 유해물질 잔류검사 등 안정성 검사를 마친 뒤 소비자단체와 생산현장 방문 및 모니터링을 통해 닭고기의 품질과 안정성을 검증 받는다. 이후 통합 상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G마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무항생제축산물인증제도



무항생제축산물인증이란 기존 농산물에만 적용되던 친환경인증제도를 2007년부터 축산물에도 새로 도입한 제도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항생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사료를 급여하여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경영관리, 축사 및 사육조건, 가축의 입식 및 번식방법, 전환기간,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운송·도축·가공과정의 품질관리,

가축분뇨의 처리 등의 세부기준들을 인증기관의 엄격하고 철저한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받을 수 있는 국가공인 인증 제도이다. 이와 더불어 85% 이상의 유기사료만을 먹인 축산물에게만 부여하는 유기축산물인증제도도 있다.

HACCP(해썹)마크



‘해썹’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식품의 안정성을 자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관리체제이다. 또한 HACCP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 소비자에 따르면 HACCP를 도입한 매장의 닭고기가 일반 매장의 닭고기에 비해 위생상태의 척도인 세균수에서 2~4배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나 그 우수성이 입증되었다.

Tip 가짜 인증마크에 주의하자.

친환경인증을 받은 축산물은 포장 또는 용기에 인증 받은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산지, 인증일자 및 인증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인증 표시도형(로고)만 있고 인증번호 등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경우 가짜 인증마크일 가능성이 높으니 닭고기를 살 때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한다.

색깔을 통해서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 인증마크는 같지만 아랫부분에 친환경축산물 등급 명칭과 함께 그에 따른 색깔이 표시된다. 무항생제축산물은 하늘색, 유기축산물은 초록색이다. 인증 로고의 바탕색이 다를 경우 진짜가 아니므로 구입하기 전에 꼼꼼히 색깔을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

NEWS

중국, 미국산 닭고기에 최고 105% 반덤핑 관세 부과

중국·미국 간 무역보복 확산 조짐

중국이 2월 13일부터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최고 10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관세 조치로 중국의 닭고기 최대 수출국인 미국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상무부는 5일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미국산 닭고기가 중국에 너무나 낮은 가격에 수입돼 중국내 업체들이 경쟁력을 잃고 있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해 해당 품목에 대해 43.1~10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9월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반보조금 조사에 들어간 중국은 이번 조사에 적절히 대응한 업체는 최고 80.5% 관세를 부과받으며 그렇

지 않은 업체들은 최고 105.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난 1월 중국산 전기담요와 타이어에 대해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분석됐다. 여기에 미국이 곧바로 중국산 선물상자와 장식용 리본에 대해 최고 200%가 넘는 반덤핑 관세 부과로 맞대응하며 양국가간의 무역보복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접견, 그리고 중국 위안화에 대한 미국의 환율정책 간섭 등으로 두 나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그 여파가 주목된다.

러시아, 2015년에 닭고기 자급국가 선언

닭고기 수출국 미국 피해 가장 클 듯

러시아가 앞으로 자국내 닭고기 수입 물량을 점차 줄여나가 오는 2015년에는 닭고기 수입 물량을 없애고 전면 국내산 닭고기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국내 수요를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닭고기를 생산하여 앞으로 4~5년내에 러시아가 닭고기 수출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러시아는 연간 170만톤의 닭고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수요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이번 발표는 러시아가 닭고기 자급국가를 넘어 수출국으로의 변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닭고기 수출국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1월 러시아는 미국산 닭고기의 염산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아 미국산 닭고기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를 계기로 그 동안 국내 수요의 50%를 차지하고 있던 수입 닭고기의 물량을 줄이면서 국내산 닭고기의 생산성을 높여 닭고기



의 자급률을 높여 나갈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러시아의 최대 닭고기 수입국인 미국은 이번 조치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닭고기 수요의 22%를 차지하고 있던 미국산 닭고기는 2009년 75만톤에서 2010년 올해 60만톤으로 수입 물량이 감소한데다 러시아의 수입금지 조치로 닭고기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NEWS

이준동 양계협회장, 농단협 신임회장 선출

“농민들의 권익 대변하는데 전력 다할 것”



(사)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이 제12기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에 당선됐다.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지난 2월 18일 20개 품목단체장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정기총회’를 개최해 2009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과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신임 회장과 부회장, 감사 등 제12기 전국농민단체협의회를 이끌고 갈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했다.

이날 새로 구성된 제12기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임원진은 회장에 이준동 대한양계협회장이 선출됐고, 부회장에 생활개선중앙회 이미화 회장, 한국관광농원협회 진영호 회장, 한국쌀전업농중앙회 홍준근 회장이 각각 선임됐다. 감사직은 한국양봉협회 배경수 회장과 한국화훼협회 백병현 회장이 맡아 활동하게 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2009년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단체장에 대한 공로패 시상과 전임 회장인 대한양돈협회 김동환 회장의 이임식도 함께 진행됐다.

가축질병 상담·신고 ‘1666-0682’

방역본부, 22일부터 대표전화 운영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축산농가들의 가축질병 상담과 의심축 신고를 위한 대표전화 1666-0682(방역빨리)번을 2월 22일(월)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1666-0682번 대표전화는 축산농가가 가축질병에 대한 상담·신고사항이 발생했을 때 전국 어디서든 통화가 가능하며 안내멘트에 따라 해당 지역번호(D.D.D)를 누르면 관할 도본부로 연결되어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가축전염병의 의심축 신고는 물론 가축방역 상담 등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도본부 직원의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안내를 받게 되며 담당지역 방역사와 연결을 원하거나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를 신속하게 연결해 줌으로써 고객서비스 접근성과 만족도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방역본부는 대표전화 홍보를 위해 안내 스티커 20만장을 제작하여 축산농가에 배포할 계획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www.lhca.or.kr

가축 방역상담 · 의심축 신고 전화는?

1666-0682

방역빨리

담당 : 070-8282-

농협, 가금육 우수성 담은 ‘가금신화’ 발행

농협 축산유통부(부장 이기수)가 백색육인 가금육과 계란 우수성 홍보를 통한 소비기반 확대와 국내산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금신화(新話)-닭·오리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가금신화는 닭, 오리 등 가금육과 계란, 오리알의 유래 및 가치와 함께 부위별 스토리와 주요 특징, 요리방법 등이 수록돼 있다.

NEWS

HACCP적용작업장 신청 수수료 인상

가축사육업, 현행 대비 20만원 증가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최근 축산물HACCP적용작업장 등에 대한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원가 등을 감안, 지정 등 신청할 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상향 조정했다.

‘축산물HACCP적용작업장 등의 지정 등 수수료 규정 개정’에 따르면 가축사육업(소·돼지·닭·오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현장심사를 면제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현장심사 12만원이 추가됐고 서류심사비도 당초 20만원에서 1만원 늘어난 21만원으로 개정됐다. 그리고 정기점사도 기존 10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돼 총 20만원이 상승하게 됐다.

이에 대해 대한양계협회는 입법예고기간에 농식품부에 공문을 보내 HACCP를 인증받기까지 농가들이 상당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인증제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농가부담 수수료 인상을 자제하고 정부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심사수수료 조정은 축산물HACCP 수요증가에 따른 심사인력 및 제반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불가피한 최소한의 조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동안 가축사육업의 경우 면제가 되어왔던 현장 심사비 납부도 원가대비 30%



개정된 HACCP적용작업장 지정 수수료

(단위 : 천원)

대상업종	지정심사 및 연장심사			정기심사	지정심사
	서류심사	현장심사	계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보관업, 운반업, 집유업	210	490	700	350	100
식육판매업	대	210	250	460	230
	소	210	140	350	170
가축사육업 (소, 돼지, 닭, 오리)	210	120	330	170	100

이하로 조정해 타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명칭 변경

국내 축산물 품질향상과 소비자에게 우수성 알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는 최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발했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축산법 개정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변경되고, 사업 범위도 축산물등급판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이 추가되며, 축산물등급판정사에 대한 호칭도 축산물품질평가사로 변경된다.

이와 더불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도단위 ‘지역본부’의 명칭도 ‘지원’으로 개칭되며, 본원의 ‘등급사업본부’를 ‘평가사업본부’로 변경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완전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축산물의 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에게도 국내 축산물에 대한 우수성과 알 권리를 제공하여 고객서비스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NEWS

회원농가에 AI 차단방역 적극 협조 당부

(사)대한양계협회, 의심축 발견시 신고 요청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최근 도지회·지부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AI 차단방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축사 내·외부 소독, 사전예찰 활동의 강화를 부탁했다. 아울러 AI 의심축 발견시 대한양계협회(02-588-7651~4)나 수의과학검역원(1588-9060)으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협회는 일부 농가들의 방역에 대한 경각심 약화로 전염성이 강한 악성 가축질병 발병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가축사육 농가의 차단방역 강화 및 농가의 자율방역의식 강화 등 강력한 방역대책을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협회는 지난 설 연휴에 가족과 친지들이 고향을 찾으면서 축산 농장에도 방문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방

문객들의 축사 출입을 자제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며, 방문차량에 대해서는 농장 외부에 주차하고, 분무형 소독기 등으로 방문인에 소독을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지회·지부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이 가능한 회원들의 연락처 재확인과 해당지역의 양계(가금류)사육 농가 수 파악, 외국인 고용 농장 현황 파악, 지자체 축산과의 정보공유 등 대민안전 및 사전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협회는 정부가 방역소독 및 소독시설 미비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를 통한 농가점검 후, 강력한 행정 처분과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 방침을 갖고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과 주의를 당부했다.

육계자조금관리사무국 직원채용 공고

닭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육계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될 육계자조금관리사무국(농림수산식품부 인가단체)에서 아래와 같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아 래 -

1. 채용분야 및 인원

직무	직급	주요업무내용	인원
		자격요건	
공통	4급	• 육계자조금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 • 닭고기홍보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에 관한 업무	○명
	5급	• 학사이상의 축산관련학위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향후 우리나라 양계산업을 이끌어갈 의욕찬 인재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컴퓨터 및 축산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2. 전형방법 및 일정

공고기간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전형	인사발령
2010. 2. 16(화)~ 2. 23(화)		2010. 2. 24(수)	2010. 2. 26(금)	2010. 3. 2(화)

※전형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는 개별통보 합니다.

3. 제출서류

- 지원서(사진 첨부) 1부(첨부된 소정양식 사용)
- 자기소개서(경력 및 업적 중심, A4 용지 2매 이내)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업무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0. 2. 16(화) ~ 2. 23(화)
- 접수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접수방법 : 방문접수(토,일 제외) 및 등기우편(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137-871)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16-5 축산회관 5층(대한양계협회)

5. 기타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함. 자세한 사항은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02-588-7651)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poultry.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육계자조금

비매품 / 제2권 제2호 통권4호 / 등록번호 서초 라00269 / 발행 2010년 2월 15일 / 발행인겸 편집인 이준동 / 발행처 (사)대한양계협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축산회관 5층, Tel : (02)588-7651, Fax : (02)588-7655 / 인쇄처 삼원정판사 / 편집 인포아트 /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Tel : (02)588-7651 Fax : (02)588-7655

고단백, 저칼로리의 **닭고기!!**

단백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지방 함량이 낮은 저칼로리 식품이다.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높다.



대한영양사협회